반딧불축제 신비탐사 '인기몰이'

무주군, 주말 탐사 프로그램 매진

'밤하늘 반짝이는 반딧불이 보러 가자'

27일 개막되는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앞두고 반딧불이 신비탐사에 대한 예비 탐사객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인기몰이가 시작되고 있다.

무주군과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반딧불축제홈페이지(www.firefly.or.kr)를 통해 신비탐사 희망자를 접수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오후 3시 30분) 현재 5,209명의 희망자가 접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과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는 약 8천명(주말과 평일 포함)의 반딧불이 신비탐사 탐사객을 모집할 계획으로 이날 현재 주말 탐사 프로그램의 경우 매진됐으며, 평일도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신비탐사 탐방객은 7,983명이었으며, 지난 2019년은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4,815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무주 관내 반딧불이가 출몰하는 4~5군데의 탐사지역에서 반딧불이 비행과 군무를 직접 체험하는 생태 프로그램이다. 가족단위와 연인들, 그리고 반딧불이에 관심 있는 관람객들이 주 대상이다.

반딧불축제가 진행될 8월 말에서 9월 초는 늦반딧불이가 주로 활동을 하는 시기다. 5~6월에 활동을 하는 애반딧불이와 운문산반딧불이에 비해 개체 크기가 크고 발광력도 좋아 살아있는 반딧불이 신비탐사에 대한 예비 관람객들의 기대가 높다.

축제기간 동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국민체육센터 인근 축제 전용주차장에서 출발하며, 주말에 30대, 평일엔 10대를 운영, 탐사지역으로의 안전한 이동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기술연구과 반딧불이팀 정재훈 팀장은 "먹이 서식지'와 다발생지역에 대한 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를 통해 최적의 탐사장소를 제공하겠다"라며 "생애 최고의 반딧불이 탐사와 생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무주 한풍루와 등나무운동장, 남대천 등 무주군 일원에서 빛과 생태가 어우러진 축제로 벌써부터 예비 관람객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반드시 기한까지 등기 완료'

무주군, 토지확인서 발급 소유자 부동산 등기 가능

무주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0년 8월 5일부터 지난 4일 확인서 발급 접수가 마감 되면서 등기를 마친 민원인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접수 마감일까지 494필지가 접수돼 233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61필지는 상속자 파악 및 공고 처리 중이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확인서 발급은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내년 2월 6일까지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최현희 팀장은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년 기한까지 등기를 완료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사활

행안부 · 지방자치분권실 방문

장수군이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최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을 방문,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국장 등을 만나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이 낙후된 지자체의 소멸위기를 돕고자 정부가 신설한 기금으로, 행안부가 지자체의 인구 대응사업의 참신성 등을 심사해 배분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최 군수는 장수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최 군수는 장수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농업인 임대 스마트팜 사업을 비롯해 장수형 꿀벌 6차 산업단지 조성, 곤충사업중점단지 조성, 비대면 유통기업 육성 등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장수군만의 차별화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은 초고령사회, 인구소멸위험지수 최고 지역으로 지역소멸위기에 놓여있다"며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할 예정인 만큼 정부부처,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치매안심가맹점 10개소 지정 · 현판식

진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진안읍에 치매안심가맹점 10개소를 지정하고 지난 12일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01~79, 90~99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장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번 지정한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환자와 가족,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약국 2개소(제일약국, 우리사랑약국), 미용실 3개소(뉴목화미용실, 가예미용실, 제일미용실), 한의원 2개소(진안원광한의원, 마이한의원), 마트 1개소(진안OO마트), 문구점 1개소(엑센스) 등이다.

지정된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가 의심되거나, 배회 또는 실종 어르신 발견시 신고 및 임시 보호 역할을 하며 치매파트너로서 치매극복을 위한 캠페인 참여 및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송미경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은 향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역 내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치매안심 진안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안군은 총 14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안심가맹점으로 활동하고 싶은 개인사업장은 진안군치매안심센터(☎063-430-8588)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치매안심센터, 기저귀 지원 지속

진안군은 치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노후 생활 조성을 위해 조호물품(기저귀)을 2022년 하반기부터 군비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치매 환자 조호물품 국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만 지원돼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지원 기한이 지나 조호물품 수령이 중단된 등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군비를 편성하여 소득 기준 제한 없이 기저귀 지원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 방법은 수령자 신분증, 요실금 소견서를 가지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중형, 대형, 특대형 팬티형 또는 밴드형 기저귀로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해 수령 가능하다.

전춘성 군수는 "장기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의 조호물품 중 기저귀 구입 비용은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지원으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로 치매 환자 삶의 질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웰리스관광 홍보

진안군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진행되는 '제7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홍삼스파, 운일암반일암구름다리, 홍삼제품, 홍삼축제 등 진안군 홍보를 진행했다.

새로운 여행정보와 여행상품을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본 행사와 특별행사,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진안군은 박람회에서 홍삼스파 재개장과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개장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부스를 찾은 많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에 재개장한 홍삼스파와 7월 14일 개장한 운일암반일암구름다리, 진안고원치유숲, 운장산자연휴양림, 부귀편백나무숲 등 웰니스관광 1번지인 진안으로 힐링관광객들이 오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

군 관계자는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진안에 와서 진짜(진)로 편안하게(안) 쉬고 힐링과 마음의 치유를 받고 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바람이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추석명절 벌쏘임 안전사고 예방 홍보

무주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 및 성묘객이 늘어남에 따라 군민들을 대상으로 벌 쏘임 등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특히 8~9월은 벌의 산란기로 활동이 왕성해져 추석 성묘 철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우며, 최근 응급실 벌쏘임 환자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벌 쏘임 예방법으로는 △야외활동 시, 벌 자극하는 향수나 화장품의 사용 자제 △탄소음료나 달콤한 음료자제 △긴 소매 옷차림으로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꿀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부어오른 부위에 벌침을 찾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 내듯 침을 제거후 냉찜질을 등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하고, 말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차가운 물이나 얼음으로 씻어내야 한다는 것.

무주군보건의료원 홍찬표 원장은 "신속하게 얼음찜질을 하여 통증과 가려움을 완화시키고, 흐르는 찬물에 독소를 씻어내는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국제 관광박람회서 홍보

장수군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 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장수군 주요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를 펼쳤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300여 부스 18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장수군은 관람객들에게 장수군의 숨겨진 매력을 관람객들에게 홍보고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집중 홍보하고, 대표 관광지인 논개사당, 뜬봉샘 생태관광지, 대곡관광지,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등의 관광코스를 소개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장수=고판호기자